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3화 : 폭풍전야

지난 밤, 현세라 불리는 이준의 몸은 여자의 간계에 넘어가 장대만한 두께의 사특한 침을 열 군데나 넘는 곳에 꽂아야 했다. 젠장! 빌어먹을! 아직까지도 찌르르, 기분 나쁜 감각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듯했다.

말 그대로 만 이를 만에 현실에 순응하고야 만 것이다.

어혈인지 뭇지는 몰라도 영혼이 바뀐 것 같다는 말을 어찌 꺼내겠는가. 아무리 조선 시대라도 정신병자 취급받기 십상이었다.

맷집이 약한 이준으로써는 일단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피하고 살 길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세가 기울었다.

‘내가 살다 살다 침을 다 맞을 줄이야. 이 꼬라지를 상현이가 봤어야 하는데.’

의사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자의 이름은 손연희였다. 연희라...,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청초하니 어여뻐다.

이준은 스스로 불순한 의도는 결코 아니라며 깨끗이 합리화를 마쳤다. 남자들만 득실대는 특공대의 환경을 고려해보자면, 자신은 양반 축에 속했다.

연희의 피셜에 의하면 자신은 몇 해 전 고종이 없앤 헤민서의 마지막 기수라고 했다. 사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아듣기 쉽게 기수라 명명했다.

그녀의 말을 토대로 이준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대략적인 사건 몇 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이곳은 조선 후기로, 대통령이 고종이다

2. 군수로 내려온 공무원(조병갑)의 비리가 심각해 주민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3. 현재 조씨는 근무지 이탈 중

4. 이 몸의 주인인 현세라는 놈은 18살 고빠리이며, 위 2번의 공무원 때문에 부모를 잃고 현재는 일곱 살 먹은 남동생 하나를 두고 있다

5. 지금 있는 곳은 고부 인근인 고창군으로 무장현이라고 불린다

6. 고창은 풍천장어가 유명한데, 이 말을 꺼내자 다들 똥 씹은 표정을 지었다

7. 새로 내려온 이용태라는 공무원이 또 말썽이다

8. 어째 분위기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으로 바뀔 것 같다

이준은 싸맨 머리를 매만지며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걸기를 반복했다. 그의 발걸음이 유달리 무거워 보였다.

대규모 집회 시위를 통제하러 나간적은 있었어도 참가자가 되어 본 적은 없던 까닭에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훈련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집회시위는 상설부대에서 주로 도맡고 있었다. 편성된 기동대 직원들이 반기별로 하는 지휘검열(부대의 인원, 장비 등 교육전반)에서는 의경들이 주로 시위대 역할을 도맡았다.

고로, 이준은 집회시위대의 자질을 갖기에는 쿨 포인트가 초보자 수준이란 말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곳 분위기가 크게 인권을 따질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어째 사람 한 둘 죽어나가는 것은 쳐주지도 않는 듯했다.

‘대한민국에서 진압하다 사망자가 나왔다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가죽을 벗겨도 넘어갈 것 같은 말이지.’

이준은 평화공장 점거파업 당시 폭동진압 장비를 갖추고 경찰 헬기를 통해 컨테이너 안에 숨어있다, 튀어나가는 기습 전술을 꾀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노사간의 갈등으로 볼트 총까지 쏘아대던 시위대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다.

‘내가 그 볼트 총을 쏘는 입장이 될 줄이야. 그것도 목숨 걸고 싸야 해. 아, 대가리야!’

아무래도 몸을 잘못 옮긴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벌을 받는 중인 게 확실했다. 이준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었다.

“열여덟이라 제법 뽕뽕하긴 하네. 그럼 뭐해. 나이 말고는 볼 게 없잖아? 면상도 부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하.”

지난 밤 연희가 명경이랍시고 들이민 거울 속 얼굴은 눈 아래까지 사정없이 부어서 콧대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현세라는 남자는 이리 엉망으로 쳐 맞고 의식을 어디다 날려 보낸 걸까.

모르긴 몰라도 그 때문에 이준이 잡혀 온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더욱이 현세는 이곳 사람들과의 유대가 남다른 것 같았다. 하나, 이준은 아니었다. 말이 어머니고 동생이지, 아직 일면식조차 없었다. 거기다 어머니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들었다.

그건 이준이 살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빌어먹을, 닭아도 그런 걸 닭고 았았
다며 이준은 스스로 자조했다.

“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성! 성!”

이준은 어쩌면 블록버스터 급 몰래카메라에 출연중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면식도 없는 동생 얘기를 꺼내자마자 멀리서 작달막한 남자애가 달려오다니, 소름
이 다 끼쳤다.

심지어 녀석은 이준의 허리께를 붙들고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볼을 비비적거리기까
지 했다.

“성... 이제 괜찮은거? 종이가 많이 걱정했어.”

아, 그러고 보니 이 몸의 동생 이름이 ‘현중’이라고 했던가. 이준은 아직 제 성을 묻
지도 못했다. 자꾸만 정신병자 보듯 하는 눈빛들 때문에 애써 태연을 가장할 수밖에
없었다.

저를 종이라 지칭하는 조그만 녀석은 제 형을 무진장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럼 뭐
하겠는가. 어린이들에게 딱히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이준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추운데 그냥 들어가라. 감기 걸린다, 너.”

“이잉... 싫어! 성이랑 같이 있을 거여! 머리통 깨진 것 좀 보여줘 봐. 피 많이 났어?”

되바라진 놈이라더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제 형이 걱정돼서 뛰어온 줄 알았
더니, 깨진 머리통을 구경시켜 달라니. 아무렴! 애는 애였다.

이준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허리를 약간 숙였다.

“너, 머리뼈 본 적 있냐? 안에 든 골까지 다 보여. 엄청 징그럽다, 그거? 한번 볼래?”

이준이 잔인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천을 만지작대자, 아이의 두 눈에 금세 눈물이 차
올랐다. 형의 상태가 약간 좋지 않다더니 정말인 모양이었다.

늘 다정하게 목마를 태워주고, 하나를 얻으면 전부 쥐버리는 형이었는데.

“서영... 말투가 왜 그러? 많이 아픈 거? 약은? 약은 먹었당가? 흐애앵...”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준은 몹시 당황했다.

“야, 너 왜 울고 그래! 장난이야. 그냥 장난 친 거라고. 울지 마, 응?”

이준은 옷소매를 쪽 당겨 아이의 말간 얼굴을 연신 훔쳐 주었다. 두 볼이 뽀로통하게 부어오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이 조그만 녀석에게서 부대에 있던 토르가 떠오른 건 그때였다.

“너, 토르라고 알아?”

당연히 모를 테지만 이준은 과장되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현중은 언제 울었냐는 듯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반짝이며 되물었다.

“토르라고가 뭔디?”

이준의 얼굴이 빨개졌다. 가슴이 간질거려 참기가 힘든 눈치였다. 애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저로써는 장족의 발전이었다.

심지어 이 녀석의 눈망울이 꼭 가을 산에 맺힌 도토리처럼 땡글땡글했다. 이준은 특히 그 점이 맘에 들었다.

그래서일까. 이준은 전보다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해주었다.

“토르라고가 아니라 그냥 토르.”

“토르? 먹는 거여?”

녀석이 금방 배고픈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시자 이준의 잇새로 참았던 웃음이 팍 터져 나왔다.

“푹! 그건 츠르고. 천둥의 신 토르. 갠 말이야... 이만한 쇠망치로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쇠망치만 있으면 저기 창고는 그냥 눈감고도 박살을 낸다고!”

손짓 발짓 다해가며 토르를 설명하는 형을 본 현중은 탄성까지 지르며 감탄했다. 형이 말하는 천둥을 일으키는 쇠망치만 있으면 더 이상 마을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조씨같은 나쁜 놈들을 잔뜩 혼내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현중은 형의 옷자락을 붙들며 연성을 올렸다.

“성! 토르 나리께 부탁해서 그 쇠망치를 빌릴 순 없을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이준은 진심으로 폭소를 쏟아냈다. 요즘 저만한 애기들은 모르는 게 없다던데..., 조선시대는 과연 조선시대였다. 아이가 주는 순수함에 녹슬었던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말만 잘 들으면 이 형이 토르 나..., 크흠! 나리께 한 번 부탁 해볼게.”
“성!”

현중은 몹시 밝은 표정으로 이준의 품에 쏙 안겼다. 봄의 햇살을 녹여놓은 듯 말갭게 빛나는 얼굴이 무척이나 눈부셨다.

이준은 동글동글한 현중의 머리통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정말 토르를 떠올리게 하는 따스한 감촉이었다.

그리고 보니 길옆에 놓인 바위틈으로 녹음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날짜를 추정해보니 2월 말이나 3월 초입 같았다.

농민군의 숫자는 홍수처럼 불어나 벌써 수천 명에 다다랐다. 무장현 근처에 집결해 있던 ‘손화중’이라는 형님과 세를 합한 게 영향이 컸다. (일단 만난 적 없는 사람은 전부 형님으로 통일함)

두령이라 불리는 이곳 형님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준은 머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팔자 좋게 한약을 마시고 이따금씩 침을 맞았다.

정말이지... 연희의 말발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준은 결코 미모에 넘어간 게 아님을 확실히 밝혀두었다.

이준이 속한 특공대의 석 주임이 그런 말솜씨를 가졌더라면, 인질 사건에서 한 획을 그었을지도 모를 터였다.

“성! 성아!”

귀엽지만 성가신 녀석이 켜 걸음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다. 이준은 일부러 못 들은 체하며 삶은 감자 껍질을 열심히 까 내렸다.

현중은 이준이 끼고 있는 광주리를 가리키며 새맑은 목소리를 냈다.

“성! 껍질을 왜 까고 지랄이여? 아깝게...”

꼭 시냇물에 풍당풍당 돌을 던지듯 아이의 목소리는 낭랑함 그 자체였다. 이준은 썰

룩거리는 입꼬리를 애써 누르며 까던 감자를 내려놓았다.

“쫘, 이 형은 질긴 건 질색이야. 껍질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참 나.”

이준은 일부러 콧잔등을 찡그렸다. 이제 제법 얼굴근육도 유연해지고 붓기도 많이 빠진 것 같았다. 페이스오프를 기다리는 게 꽤나 즐거운 이준이었다.

“그럼 나가 먹어도 돼야?”

현중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자껍질을 집어 들고 입에 넣으려 했다. 그 모습을 본 이준은 깜짝 놀라 현중의 손목을 낚아챘다.

“야 임마! 버리는 걸 먹으려고?”

악력이 제법 거셌는지 현중의 눈동자가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요즘 따라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하지도 않던 장난을 치는 형의 모습에 안 그래도 속상하던 차였다.

거기다 감자는 늘 껍질 째 먹던 성이 아닌가!

“나, 나는 시방, 그냥... 으아앙!”

이준은 처음 깨달았다. 강인하다 자부해 온 이 영혼은 여자와 애들에게 약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뒷덜미에 맺힌 식은땀을 쓸어내리며 이준이 말했다.

“어이, 쫘! 울지 마! 형이 장난 친 거야. 껍질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정말이여?”

닭똥같은 눈물을 쉴 새 없이 자아내던 현중의 얼굴에 금방 무지개가 뿔었다. 녀석은 이준이 내민 감자를 집어 들고 잠시간 고민하더니 반으로 살살 쪼갰다.

“나눠 먹자.”